



세월호·위안부 할머니 위한...

치유

광주아버지합창단 9일 문예회관

지난 1998년 출발한 광주아버지합창단(단장 장세일)은 창단 연주회와 함께 실직자·금마련 음악회를 함께 열었다. 이후 단원들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연주회를 꾸준히 열어왔다.

올해는 아물지 않는 세월의 상처를 보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는 노래들로 프로그램을 짜고 '치유'라는 타이틀을 부쳤다.

광주아버지합창단 가족사랑음악회가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눈물의 기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잊지 말아요', '가족이라는 이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등이다.

또 비와 꽃, 섬과 친구라는 주제로 추억을 만드는 노래들도 준비했다. 레퍼토리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꽃받치 끼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 '풍문으로 들었소', '광화문 연가' 등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메소 소프라노 김하늘씨가 특별 출연, '봄치녀'와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를 들려주며 광주 KBS 어린이 합창단은 '행복을 주는 사람' 등을 선사한다.

광주아버지합창단은 교사, 회사원, 의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30~60대 가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모두 1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무대에서는 70여명의 단원들이 공연한다.

지휘는 윤원중씨, 반주는 문선은·김정은씨가 맡는다. 이지현씨는 안무를 지도했다.

한편 광주아버지합창단은 신일 단원도 모집한다. 연습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진행된다. 아버지 합창단 카페 <http://cafe.daum.net/farus3190>. 문의 010-7797-22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5일 국립광주박물관에는 개관 이후 하루 최다 관람객이 찾았다.

지난 5일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른 오전부터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들었다.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람객들은 박물관 정원에 작은 텐트나 돛자리를 펴고, 전통놀이에 참여하거나 전시를 관람했다. 박물관 직원들이 손수 만들어 선물하는 솜사탕과 팝콘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가정의 달' 5월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놀이공원이나 유원지 대신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찾는 가족들이 크게 늘고 있다.

놀이공원 대신 박물관 가정의 달 풍경 달라졌네

박물관·미술관 '어린이날' 복작

국립광주박물관 9200여명 방문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2573명

미술쇼·연주회·전통놀이 등 다채

지난 5일 모두 9287명의 시민들이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을 찾았다. 이는 1978년 박물관 개관 이후 하루 최다 관람객으로, 그간 진행한 어린이날 행사 참여 인원의 3배에 달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날 '신나는 박물관 여행'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관람객들은 제기차기, 팽이치기, 도롱데 만들어 굴리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과 함께 풍선아트 체험에 참여했다. 또 지난 2011년 세계 최고의 미술상인 말린어워드 수상한 정성모 미술사의 '마술공연'과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돌아온 리바'가 상영됐다. 박물관 직원들이 직접 만든 솜사탕과 팝콘은 이날 인기 코너 중 하나였다.

정지선(여·38)씨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놀이공원보다 아이들에게 전통문화를 가르쳐줄 수 있는 박물관의 전시를 보여주면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박물관을 찾았다"며 "박물관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줘서 아이들도, 저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조현중 관장은 "학부모들이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경험을 안겨주고, 생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박물관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과 상록전시관에도 지난 5일 하루 2573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시민들은 팝페라 공연, 바이올린과 오카리나 연주를 듣고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상록전시관에서도 도예체험, 염색 체험, 초상화 그리기 행사가 열렸다.



극단 얼·아리 '아빠도 안아주고 싶었다'

아버지날 문화행사

시립미술관 '아빠의 청춘'展 연계

편지쓰기·강연·연극 퍼포먼스

국립나주박물관 닥종이 인형전

아버지날을 맞아 광주시립미술관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5 민주인권평화전 '아빠의 청춘'과 연계한 행사다.

편지쓰기 행사는 8~10일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별도로 마련된 편지 쓰는 코너에서 관람객이 쓴 편지를 부모님

에게 발송해줄 예정이다. 8일 오후 3시에는 '철학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시대 아버지상'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분관 2층 세미나실에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 이후인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는 극단 얼·아리가 '아빠도 안아주고 싶었다'를 주제로 연극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또 이날 부모님과 함께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는 장미꽃을 선물할 예정이다.

'아빠의 청춘'은 대한민국 산업화 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시대 '아버지'를 통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된 전시로 요철한 천재 작가 구본주의 작품을 비롯해 김희상, 박진화, 이혜숙, 장창익, 조정태, 최석운 작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13-7143.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도 종이마당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세대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닥종이 인형특별전 '옛날 옛적에 엄마 아빠는'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전시는 따뜻한 표정의 인형과 옛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19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변화한 학교의 점심시간 풍경과 먹을거리를 보여주거나 핵가족이나 싱글족 등과 달리 3대가 시골벽적했던 옛날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문의 061-330-7800. /김정기자 kki@

전남대 'BK21 지역어 기반 사업단' 오늘 전문가 초청강연

전남대 'BK21 플러스 지역어 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과 교수)이 제 8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7일(… 오후 2시 인문대 2호관 교수회의실(408호)에서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는 전라도닷컴 황동년(51) 대표가 강사로 나서, '전라도말에는 전라도의 마음이 있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황 대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어로서 전라도말이 지닌 의미와 감성 그리고 순기능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려

줄 예정이다. 순천 출신 황 대표는 2002년 문화잡지 전라도닷컴을 창간, 지금까지 대표와 편집인을 맡아왔다. 저서로 '벼꽃 피는 마을은 아름답다', '풍년식탁' 등을 펴냈다.

한편 사업단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역어와 문화'를 키워드로 국내외 저명한 석학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초등생의 詩라니... 출판사 '잔혹 동시' 논란 시집 회수키로

초등학생이 학원과 엄마를 소재로 쓴 동시가 잔혹성 논란에 휘말렸다.

6일 출판사 가문비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이 출판사에서 출간한 초등학생 A양(10)의 동시집 '술로강아지'에 '학원가기 싫은 날'이라는 작품이 실렸다. 해당 시에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 이렇게 // 엄마를 씹어 먹어 / 삶아 먹고 구워 먹어 / 눈알을 파먹어 / 이빨을 다 뽑아 버려"라는 구절을 비롯해 '잔혹 동시'라 할 만한 선정

적인 표현이 많이 담겼다.

이 시가 실린 페이지에는 피가 낭자한 누군과 함께 일 주면이 피로 물든 여성의 삽화까지 그려졌다. 시의 내용이 알려지자 동시를 쓴 아이와 이를 용인한 학부모·출판사, 그리고 선정적인 삽화를 그린 그림작가가 표적이 돼 누리꾼 사이 논란이 가열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가문비는 전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시중에 나간 도서를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유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 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시(엔터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